

##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요지

김권중 (중부고고학연구소)

본 발표문은 그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미진했던 청동기(무문토기)시대 전기 분묘의 연구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국 동북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적으로는 청천강 이남지역, 시기적으로는 전기 후반에 주목하여 시·공간적 획기와 경계를 설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도 대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일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우선 석곽묘로 분류된 정선 아우라지와 홍천 외삼포리, 최근 보고서가 발간된 홍천 철정리Ⅱ 등의 분묘는 다른 것과 달리 구조(깊고 완전한 지하식)와 재료(천석 중심)에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 토론자가 석곽묘로 분류한 바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전기의 다양한 계통의 분묘를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과 함께 질문 2의 내용과 연동되는데 이러한 완전한 지하식 구조의 분묘가 전기에서도 이른(전반) 단계의 묘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2. 현재까지 조기의 분묘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에 매장하는 습속이 등장한 것은 전기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발표에 의하면 전기의 분묘는 모두 후반으로 한정된다. 강원도만의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양양 송전리 토광묘, 양양 방내리 석관묘의 부장품과 앞서 언급한 석곽묘의 부장유물 등 전체적으로 석검 등의 일부 유물을 제외하면 부장품을 전기의 전반과 후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어떠한가?

3. 개인적으로 앞의 질문을 토대로 한다면 이러한 분묘의 피장자는 위계화가 이루어진 유력자이고 이미 전기 전반에 존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위계화의 진전으로 분묘의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이 전기 후반부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의 변화를 비롯하여 주구와 적석시설 등 피장자를 강조하기 위한 각종 묘역시설의 등장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위계화의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전기 내에서도 전반에 이미 위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후기에는 좀 더 심화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떠한가?

4.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원과 계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중국 동북지역에서 어느 특정 계통의 분묘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통의 분묘가 전파된 것이라는 점에는 찬동한다. 다만 주거지 구조와 토기(유문양)에서 보면 이미 전기 전반부터는 물질문화상으로 지역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장품으로만 볼 때는 지역차가 없어 관념적으로 부장습속의 공통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장품의 종류가 석기(석촉, 석검)와 비파형동검, 일부 토기(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옥 등에 대부분 한정되어 기본적으로 지역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천강 이남지역의 부장습속이 공통되었다고 하는 관점은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부연 설명을 부탁한다.